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문창국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조은실 /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용산동 6가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사회선교부 신설

소외된 약자 위한 종합적 긍휼선교사역 1월 20일 19시, 서빙고 한동홀 오리엔테이션

사회선교부가 신설됐다.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긍휼선교사역이다.

사회선교부 본부장 이훈 목사는 지난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미가서 6장 8절을 기초로 공의, 긍휼, 겸손을 추구한다.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 사역으로 영역을 나눴다.

▷사회책임 영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과 환경사역’, 청지기 정신을 고취시키는 ‘청지기사역’을 실시한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 한명

을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아둘람(아름다운 마음으로 둘러선 사람들), 해외입양인들과 농어촌 목회자들이 서울에 올 경우 제공하는 홈스테이 ‘쉼만한 물가’, 입양가정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제이홈’, 은퇴자들과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늦봄’, 노동선교사를 세우는 ‘새벽빛’,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평이람(평화를 이르는 사람들) 사역을 한다.

▷사회통합사역은 탈북민을 위한 하나공동체, 한터, 미래홈, 하나원과 다문화사역을 담당한다.

▷방문지원사역은 농어촌미자립교회와 교정기관 방문 사역을 감당한다.

▷나눔사역은 사랑의 줄 잇기, 사랑의 나눔 장터 등 구제 봉사를 실천한다.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부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린다. 1월 20일 저녁 7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4(최혜옥 사역자)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사회선교 관련 필독서

“하나님 나라, 거꾸로 뒤집은 질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새로운 질서였다. 겉이 아니라 대야를 든 예수님,

섬김과 내어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꾸로 뒤집힌 나라를 알 수 있다. 허영과 양적 성장에 집중해 온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지향해왔다. 건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허세로 신앙적 오류를 범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거창한데 있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많은 교회들이 해외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길거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다국적 체류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과 해외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 본문 중에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도널드 크레이빌/복있는 사람

러빙핸드 자원봉사자 모집

러빙핸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식당팀 40명, 청소팀 40명, 꽃꽂이팀 10명이다.

식당팀은 설거지와 배식, 홀 서빙 및 안내를 매주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담

당한다. 청소팀은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시간선택가능)까지 교회 곳곳을 청소한다. 꽃꽂이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결혼예배에서 사용한 꽃을 재활용해 교회 장식을 한다. 지난해부터 자원봉사자 수

가 줄어 부담이 크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식당봉사, 계단,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성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문의_조영준 총무 010-3934-6684

위치_서빙고 본관 1층 러빙핸드 라운지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신청 안내

홈페이지 : www.onnuri.or.kr

온라인 사무국에서 신청하시면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요약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몸을 통해 낳은 자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한없이 낮춘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발 끈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 취급을 받고, 온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가장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가능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눅 3: 21~2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눅 3:15~22

1959년 미국 미시간주의 입실렌티 주립대학 주립병원에 세 명의 특이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세 사람을 2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출입니다.

메시아 콤플렉스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증이나 정신분열증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한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일수록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완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모두가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기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한 순간에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가 구세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나 인정, 칭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기대와 존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겸손과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는 장차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으시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15-17절).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세례와 불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불의 세례로 비유한 것입니다.

물은 길을 깨끗하게 할 순 있지만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은 속까지 태웁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례가 성령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은 도구적인 의미가 아니라 ‘안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와 물세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물세례를 주었지만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변화시

킬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겉가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속을 태우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세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발 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과 뒤에 오시는 분은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그분은 세례요한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입니다.

세례요한은 진리에 대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심판에 대해 설교해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진리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도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발 끈은 종이 풀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당시 종들은 종류에 따라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발끈 푸는 일은 가장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합당치 않다고 했던 세례요한의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신발 끈을 푸는 일을 맡겼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구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중에 신발끈을 푸는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 우리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높이는 인생 되십시오. ”

세례요한의 겸손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모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발 끈을 풀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가 열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요한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홀로 있는 그를 찾아와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려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세례요한이 가졌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발 끈을 푸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세례요한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신발 끈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잘 참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자로 취급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는데 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한 취급을 받는 것을 억울해 합니다.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의 잘못도 있는데도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자신을 낮춰도 예수님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합당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진리를 말하고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당시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인들과 같이 취급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죄 값을

저는 요한이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재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장차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의 선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결의한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결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희생하러 가는 아들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령님은 임재 하심으로 예수님이 겪을 고난을 온유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피랍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선교였고 순교였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신앙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린 인생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21~22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

담당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죄인과 같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변화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런 몸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었는데 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28일째 / 1월 13일

박종길 목사

실로암의 은혜

요한복음 9:1-7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회의적, 염세적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종긴한데 삶의 어려운 부분을 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1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2-5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6-7절).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더 큰 기적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너무 큰 사건이었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네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왔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풀리지 않는 저주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에서,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해 주시고, 모든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실로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일째 / 1월 14일

이재훈 목사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5:21-28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 문화만 존재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독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칭찬에 인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외에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평소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인의 요청에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바라는 여인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24절). 침묵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침묵과 거절 속에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인은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응하는 믿음, 온유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합니다(25절). 여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거절하십니다(26절). 두 번째 거절보다 가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대명사가 ‘개’였습니다. 보통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예수님이 평범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27절). 이 말에는 예수님이 나

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옮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은혜는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춘 말입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족하다”는 고백 속에 위대한 겸손이 숨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믿음으로 나갈 때 부스러기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30일째 / 1월 15일

이상준 목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욥기 1:8-9

욥이 두 차례의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들을 한 번에 잃고,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벽돌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심한 질병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했고 신뢰하셨습니다(8절). 천상의 회의에서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선수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겨낼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둘째, 욥은 고통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을 때도 외면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면 인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논쟁에 가깝습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날 좀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위로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대답도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중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욥이 혼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이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

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과 치유와 승리가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실패, 좌절, 질병, 어려움, 상처,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31일째 / 1월 16일

이재훈 목사

은혜와 자유

갈라디아서 5:1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중의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멍에,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어느 날 이사를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눅 4:18, 19).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은혜의 해’는 회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

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얼마의 빛이 있든지 간에 회년이 되면 경제적인 채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만 자유라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할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빛이 탕감되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누리게 될까요?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법칙입니다(갈 5:13-15).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진짜 자유한 인생을 사십시오. 진리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 서로 종노릇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2일째 / 1월 17일

이기원 목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왕기상 19:1-10

엘리아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엘리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2절).

엘리아가 무너진 이유는 심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아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세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회복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아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5절).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아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아를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아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

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3일째 / 1월 18일



김영길 장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경북 안동의 한 유교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196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NASA(미 항공우주국)로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그 곳에서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만났고 1974년 부활절에 AD와 BC가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진리입니다

1978년 귀국했습니다. 당시 홍릉 과학단지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집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80년 한국창조과학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학술대회에 서울 생명공학전공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주장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1980년 8월 13일과 14일에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창조과학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창조를 증거하느냐’라는 공격도 받았지만 창조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창조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과학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만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연구도 알 수 없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15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1994년 2월 포항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정적인 카이스트 교수로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한동대학교 재단이 튼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동대학교의 초대총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2-3개월 후에 재단사업이 붕괴되었고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기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재정을 공급해주셔서 기적적으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만나면 도전하십시오



한동대학교 초대총장 김영길 장로의 소망을 들은 성도들이 한동대학교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비전(vision)은 자기욕망의 앰버션(ambition)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되면 영적 싸움도 시작됩니다. 고난을 만나 좌절하면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힘들 때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기도응답이 바로 되지는 않았지만.

IMF시절 교수들의 월급이 밀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한동대학교를 21세기 교육개혁모델

대학으로 선정해 13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원금을 교수님들 급여로 지급했다고 하여 국고금 전용죄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1일에 법원에 징역 4월을 구형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당시 경주구치소에 수감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예수님을 생각하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에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01년 스

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은 많은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제 사건이 기사화되어 제가 수감되어 있던 53일 동안 46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이 된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이 튼튼했다면 순수한 기독교대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를 개교하면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부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을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속화가 되어가는 기독교 대학들 속에서 한동대학교는 한 손에는 신앙을 또 다른 손에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장직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동대학교가 세속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입니다. 만물은 엔트로피에 지배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연계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질서에서 질서가 증가되는 생명체는 변화하고 성장과 번식을 거듭합니다. 이를 ‘신트로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참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신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더 큰 스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만물은 타락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다시금 회복 되어야 합니다. 드라마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동대학교 또 다른 2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렘이 큼니다. 한동대학교의 영성은 온누리교회가 기반입니다. 한동대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들고 위문을 온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철창버스에 탔는데 교도관이 저를 알아보시며 “저도 기독교인이예요. 손목 아프시죠?” 하면서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위로 받으면서 가는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

신년캠페인 -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2

강변북로에 주차 못한다

강변북로에 불법주차 막는 시설물 설치
2월부터 견인 및 과태료 등 강력 단속



강변북로에 설치된 불법주차 안내문과 시설물.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동빙고 근린공원 개발 및 온누리교회 확장추진을 결사반대’

신동아아파트 정문에 플래카드가 붙었다. 근린공원(비전의 땅)재정비에 따라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서면 또 다른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근린공원이 온누리교회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주차문제다.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차문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올해는 반드시 해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내놓은 해법은 ‘바른 주차, 빠른 소통’이다. 매주일 서빙고와 양재로 몰려드는 모든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운전자

1. 교회 정문 신호준수, 교차로 꼬리물지 않기
2. 교회 정문 사거리에서 불법유턴 하지 않기
3. 교회 정문 교차로 주변에 장시간 정차하지 않기
4. 통로주차 차량 예배드린 후 바로 차 빼기
5. 교회진입 차량은 비상등 켜고, 창문 조금 열기 (주차팀과 소통)

은 없다. 그렇다고 불법주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도 없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2012년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선정한 무질서 행위 발생소지가 많은 종교시설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

보행자

1. 교회 주변 통행할 때 인도이용하기
2. 주차팀의 안내 따라 횡단보도 건너기
3. 버스탈 때 차례로 줄서서 타기

았다. 그때부터 지방청 교통기동대 투입 등 특별교통관리를 받고 있지만 주차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골칫거리다. 더 이상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과거에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수

차례 해왔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다. 교회와 주민, 관계기관이 함께 주차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첫 시작으로 강변북로에서 교회로 진입하는 구간에 불법주차 막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2월부터는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 책임은 오로지 차주에게 있다.

주차팀은 교회로 진입하는 차량과 밖으로 나가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관건은 성도를 참여다. >대중교통이용하기 >교역자, 1부 성가대 유료주차장으로 >예배드린 후 곧장 차 빼기 >공동체 카풀하기 >교회주변에서 장시간 정차하지 않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년기획 - 이단 바로알기 1



이단의 어원

헬라이어 haireisis에서 유래한 이단heresy이란 용어는 본래 ‘선택하다’, ‘결심하다’, 혹은 ‘한 쪽을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이다. 시대와 장소, 문화 등에 따라 의미가 점차 변화된 이 용어는 결국 정죄적 의미가 없는 중립적 단어로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한다.

고난을 통한 초대교회의 성숙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박해와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 기초가 세워졌다. 로마 전역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으나 오히려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후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초대교회는 금욕주의

기독교 역사와 이단

적 삶을 통해 성숙했으나 이단들로 인해 위기를 맞는다. 특히 성자와 성부가 같지 않다고 주장한 아리우스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에서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결국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타나시우스의 견해가 교회의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의회를 통해 여러 이단들이 정죄되었다. 이단들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플’은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분열과 몰락의 중세교회

로마제국 멸망 후, 여러 국가들과 교회들이 분열되고 십자군 원정을 통해 종교 간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유럽 전역으로 확장된다. 교회의 성장은 교황의 영향력 확대로 십자군 원정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인해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절대적 권위는 서서히 추락했다. 교황 제도의 붕괴는 중세 교회의 몰락을 의미했다. 게다가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중세 교회의 붕괴를 더욱 가속시켰다.

당시 기독교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개인이나 단체는 종교 재판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십자군 원정의 실패를 통해 약화된 교황권은 면죄부 판매로 인해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혁운동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이 확립되었고, 성서는 이단 분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금욕 활자로 인해 보편화된 성서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의 당위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개혁자들은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개인의 금욕이나 고행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세상을 향해 GO!

대학청년부에 부는 바람! 바람! 바람!

대학부, 캠퍼스 사역 ... 청년부, '예배' · '양육' 중점

2014년 대학청년부에 세 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첫째, 변화의 바람이다. 올해부터 대학부가 독립적으로 분리돼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대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캠퍼스 성령집회, 전도 집회, 제자 양육 등을 통해 캠퍼스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것이다.

둘째, 부흥의 바람이다. 예배의 부흥을 뜻한다. 본질로 돌아가 예배와 말씀을 추구하는 것, 이를 통해 영적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셋째, 세상을 향한 바람이다. 예배와 말씀이 견고해진 청년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다. 거지전도여행, 아웃리치, 금홀 사역 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트릴 것이다.

이 바람의 물결은 청년부,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리더십수련회 '더원'에서 1,000명의 청년부 리더십들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7,18일에는 대학부 리더십수련회에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350명의 리더십들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허 브



“한 손에는 복음, 또 다른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세상과 세상, 교회와 교회, 나아가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축복의 HUB, 사랑의 HUB가 되겠습니다.”

/ 허유승 대표MC

〈대학부〉

하 늘



“예수님을 닮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늘 건강하게 열매 맺도록 항상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겠습니다.”

/ 이동현 대표MC

Pole2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Pole2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 조광희 대표MC

〈청년부〉

갈 렘



“기쁨과 감사, 회복을 넘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갈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완식 대표MC

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지체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섬김의 모습을 발견한 나의 인생이 앞으로 달라질 것을 주님 안에 확신합니다.”

/ 신동환 대표MC

여호수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고 그 군대가 다시 마른 뼈들을 살리듯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한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 양준혁 대표MC

요셉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김형락 대표MC

J4U



“부르심이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올 한해 J4U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 올리겠습니다.”

/ 문혜경 대표MC

SNS



“리더로서 부르심이 큰 기쁨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마디의 부르심에 순종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서유진 대표MC

W



“리더가 아니었을 때 그저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갈급해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 김기역 대표MC

칼럼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부장)

“생명을 전하는 청년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둡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둡고 암울해만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37: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납니다.

저는 온누리 대학청년부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기를 꿈꿉니다. 온누리 대학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의 젊은 이들에게로 도움이 필요한 곳곳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8,000여명의 온누리 대학청년들이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마른뼈가 살아난 것이 에스겔 자신이 일으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대학청년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섬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수많은 이단들과 세속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승리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견고한 양육입니다. 진짜를 맞본 사람만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듯이 내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알 때에 가짜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블아카데미를 통해 말씀 중심의 양육프로그램이 세워지고 QT와 일대일이 기본이 되는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심의 양육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청년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프렐(거지전도여행)으로 노방전도로 아웃리치로, FA로 복음을 전하는 물결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을 위한 드림캠프, 윈터캠프,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희망교복사역, 지방의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허그더월드’ 사역이 더욱 확장되고 1000명의 미자립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The One 전국대학청년수련회”도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4년 대학청년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대학부가 독립적인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 가장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캠퍼스를 향해 온누리의 대학생들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캠퍼스 부흥을 위한 캠퍼스성령집회가 거점 대학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또한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전도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를 변화시킬 대학생들을 키워낼 양육과정으로 대학부 CDC와 캠퍼스제자양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캠퍼스마다 온누리 대학생들을 통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누리 대학청년부의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중동

Acts29 비전 꽃피우는 밑거름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에서 중동 선교를 빼놓을 수 없다. 순교자를 배출한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국가에서 선교 열전을 썼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중동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순교자 배출한 이라크 선교

2004년 2월 21일 온누리교회는 슬픔에 잠겼다. 이라크에서 사역하던 김사무엘 선교사가 순교했기 때문이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2003년 9월 18일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에 들어가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돌보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그해 12월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이었다.

미국에서 급히 수술하고 깨었을 때 “이곳이 바그다드냐?”고 몇 번씩이나 확인할 만큼 그의 머릿속은 이라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후에도 위기감은 계속됐다. 사역자 9명이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하면서 모든 사역이 중단됐다. 사역팀과 국내기도 모임은 이라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라크한인연합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김선일 형제가 2004년 6월 22일 피랍돼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무리한 선교 활동이라며 온누리교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후 모든 사역팀이 이라크에서 철수, 현재 이라크 선교는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현지 교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무릎선

교로 그 땅을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서사시**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이 형성된 1990년에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칠 KIBI(한·이 성경연구소)를 창설해 숨 가쁘게 달리기 시작했다. 메시아가 나섰던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이 2005년 8월 10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어진 6km 구간에서 열렸다. 행진에는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할렘루야교회, KIBI, 인터콥 등 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인 2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진에 대해 이스라엘인들은 대체로 미온적이었던데 반해 팔레스타인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거리엔 “우리의 친구인 한국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들이 걸려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진심어린 환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엘리아스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한글이 적힌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국내 언론에 반해 AFP통신, 로이터TV, 이스라엘TV, 팔레스타인TV 등 외신기자들이 몰려 이 행진에 대한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아프간 선교

아프가니스탄 사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남식 집사가 아프



온누리교회 선교열전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이어졌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사진은 2005년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년 순교한 김사무엘 선교사

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파키스탄 대사였던 윤지준 대사에게 전달한 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영어예배, 성인예배에서 모금한 500만 원이 아프간 난민의 텐트를 짓는 데 보내졌다.

2002년 5월부터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아프간 현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정탐팀이 구성되었다. 1차 정탐을 위해 김창욱 전도사(2000선교본부)와 장선철 장로(온누리신문)가 2002년 5월 7일 출발했고, 곧이어 5월 31일 하용조 목사 외 5명이 2차 정탐을 떠났다. 하 목사는 현지에서 아프간 정부 각료들과 만난 뒤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했고, KOICA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온 각료들과도 논의를 지속했다. 이후 장기 지원 계획에 따라 학교와 보건소 건립, 마을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를 7월 30일 설립했다.

2006년 7월, 온누리 대학청년부는 여름 아웃리치를 아프간에 집중했다. 험거운 환경과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아프간 재건을 위한 길을 닦았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 피랍 사건 직후 현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후 외교통상부가 해외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프간에 파견된 모든 장단기 사역자들이 모두 철수했다. ECC도 그해 8월에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현재 아프간 관련 사역은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프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선교

2010년 2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반정부 시위 물결로 중동 선교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이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미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에게 마실 물과 생명수(복음)를 주고 있다.

NGO ‘더 멋진 세상’ 필리핀 긴급구호 그 후

온누리교회는 그들과 함께 운다

집짓기, 학교, 보건소, 비전센터 건립 계획

더 멋진 마을로 탈바꿈, 개발사업 더불어 영적 케어도

지난해 11월 8일 필리핀 중부지역에 재앙이 닥쳤다. 기상관측사상 최대크기 슈퍼태풍 하이옌이 속속 379km로 휘몰아치고 엄청난 높이의 해일까지 동반해 필리핀 중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1만 2천명의 사상자와 4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손을 쓸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널렸고, 전염병 환자도 급증했다. 지구촌 이웃들의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식수, 약품은 턱없이 모자랐다. 아비규환이었다.

온누리교회도 긴급구호팀을 급파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을 중심으로 의료팀과 긴급구호팀이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 지

역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다.

개발사업과 영적 케어

지금도 피해복구가 한창이다. 현지 주민들의 노력이 처절하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 입양한 비농안안(Binungan-an) 섬 주민들도 무너진 가옥을 치우고 새 집을 짓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는 이미 공급되었고, 목수 두 명이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집을 짓고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 입양한 비농안안(Binungan-an) 섬 주민들이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주택 40채 신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와 보건소 겸 비전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으로 꾸리고, 우물공사와 정화조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 멋진 마을을 만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개발 사업과 더불어 영적 케어도 병행된다. 현지인 사역자 플로리타(Florita) 목

사가 매주 섬을 방문해 성경공부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도 하고 있다.

일회성 구호가 아니다. ‘더 멋진 마을’이 완성될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온누리교회는 필리핀과 함께 운다.

후원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누리사랑부 창립 20주년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선교공동체

누리사랑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94년 1월 9일 재가(在家)장애인 전도 및 북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출범한지 올해로 꼭 20년이다.

지난 1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누리사랑부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박우형 장로가 누리사랑부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다. 박종길 목사는(서빙고 온누리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누리사랑부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장애인들을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권면했다.

온누리교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다섯 개가 있다.

▷장애아동 예배공동체 ‘사랑부’
▷장애청년 예배공동체 ‘예수사랑부’ ▷성인 장애인 예배공동체 ‘누리사랑부’ ▷장애인 공동체 연합 ‘장애우 선교위원회’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챔버’ ▷장애인



재가(在家)장애인 및 북한 장애인 선교를 비전으로 1994년 1월 9일 창립한 누리사랑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누리사랑부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보호작업시설 ‘변동코이노니아’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예수제자학교로 오세요”

JDS 신입생 모집 ... 총 7개 반 개설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 School: JDS)가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JDS는 서빙고와 양재, 부천, 수원, 인천에서 총 7개 반이 개설된다. 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해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훈련하는 학교이다. 주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총 25주간 진행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주간반(여성만)

장 소	수업일정	개강일	문 의
서빙고	화,목(10:00~15:00)	3/4(화)	김영심 팀장(010-2314-5492)
양재	화,목(10:00~15:00)	2/27(목)	이문희 팀장(010-7744-4471)
부천	화,목(10:00~15:00)	3/13(목)	노선빈 팀장(010-3737-5840)

저녁반(남녀모두)

장 소	수업일정	개강일	문 의
서빙고	목(19:00~22:00) 토(16:00~22:00)	3/8(토)	한병돈 팀장(010-8703-9328)
양재	목(19:00~22:00) 토(16:00~22:00)	3/1(토)	강경국 팀장(010-8949-1992)
수원	목(19:00~22:00) 토(16:00~22:00)	3/8(토)	서동주 팀장(010-8744-1709)
인천	목(19:00~22:00) 토(16:00~22:00)	3/1(토)	김광겸 팀장(011-739-9433)

정경화, NGO ‘더 멋진 세상’ 봉사대사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동참



지난 14일,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봉사대사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가 위촉됐다.

지난 14일(화), 서빙고 담임목사실에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봉사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봉사대사로 위촉

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를 비롯해 이재훈 목사, 박종길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봉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정경화 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했다.

정 교수가 홍보대사가 아닌 봉사대사가 된 배경에는 몸소 봉사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르완다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NGO 더 멋진 세상과 함께 자선콘서트를 열고 있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 8월에도 NGO 더 멋진 세상 주최로 정경화 자선콘서트가 열린다. 르완다에서 자선콘서트와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박영근 목사 호치민 담당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가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지난 12일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이종훈 담임목사 이임 및 박영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호치민 성도들을 비

롯해 한국에서 도육한 목사, 흥범식 장로, 박일구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도육한 목사(이천선교)는 그동안 수고한 이종훈 목사를 축복했고, 박영근 목사에게는 바나바같은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종훈 목사는 사임한다.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눠 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요19:23-24).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옷감 짜는 의식은 이교도들의 종교 예식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씨줄(수직의 실)과 날줄(수평의 실)로 불리는 두 줄의 실이 만나 옷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날줄’은 남성을, ‘씨줄’은 여성을 상징했는데, 남녀가 연합해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날줄과 씨줄이 만나 옷감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었다.

일반적인 속옷은 씨줄과 날줄로 불리는 두 줄의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들어졌는데, 두 개의 옷감을 붙여 끝에 솔기를 대어 꿰매면 완성되었다. 그런데 ‘호지 않고’ (솔기를 대지 않고)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은 분명 특별한 옷이었다.

이것은 ‘날줄’로만 짜서 만든 한 개의 옷감으로 된 옷으로, 실밥을 뜯어서 계속 풀다 보면 기다란 한 개의 실로 풀렸을 것이다. 이처럼 씨줄이 없이 ‘끝없는 날줄’로만 만들어진 옷은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창조주와 연결되는 족보, 연속성, 더 나아가 개인의 족보가 그러한 연속성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옷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끝없는 날줄로 만들어진 옷을 강제로 찢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서빙고 캠퍼스에서 진행된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가 막을 내렸다.

이스라엘사역네트워크(IMN)주최로 열린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에서는 아시아권 교회의 화개와 연합, 예루살렘의 부흥을 간구했다.

매년 1월 아시아 기도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월 20일(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서빙고 시온홀에서 ‘아시아 투 예루살렘’ 연합 기도회가 진행된다.

문의 070-8628-1424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1월 26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시온홀(B2)
대상: 2013년 11월 10일 ~ 2014년 1월 5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서빙고 김지연	여의도 신호능 이영복	김광웅 손해진	특별한초대 김강연 김석원 김진 민현주 박종민 박준영 방인태 서은주 원주연 윤보림 이예나래 이재연 전선영 최상희 현지혜
성동광진 김선진 김홍규 박미희 송은혜 이주연 이지원 정태영 황동일	영등포구로 박영복 이영길 한정순	이촌 김주연 조귀혜 조영동	일산 김석 이은주
용산A 김진영 김학재 박경신 배초우 옥순란 정태용 홍미영	용산B 김성왕 이형진	중종로 박용수 최정민 황신실 황은석 황의숙	천왕사역 김성태 박해영 임태경
성북 김선우 박혜진 심일숙 안윤경 이재호 이중용	양천 이선호		
노원 맹혜원 이연재 한정덕	서대문 손명호 이지희 최정란	동대문중앙 유민하	
강서 김승진 김은혜 김한 정현주	관악금천 김연주 노영진 손선영 유선미 윤정식	광명 민경화 최보람	강서 김승진 김은혜 김한 정현주
고양은평 신은선 원현선	관악금천 김연주 노영진 손선영 유선미 윤정식	광명 민경화 최보람	강서 김승진 김은혜 김한 정현주



지난 11~12일 양재 캠퍼스에서 아버지학교 비전나이트가 진행되었다. 2,300명의 참석자들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다.

2014 아버지학교 비전나이트

다시 첫 마음으로

지난 11일,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비전나이트가 양재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지부장대회와 비전나이트 행사가 열린 다음날 12일에는 해외사역자의 밤이 열렸다.

비전나이트는 비전을 품고 봉사자들의 열정을 담금질하여 연합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15회 비전나이트는 ‘다시 첫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어머니학교와 연합하여 진정한 연합운동의 의미를 빛냈다.

지난 11일(토), 추위를 뚫고 전국, 전 세계에서 찾아온 아버지학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00명의 참석자들은 ‘가정회복의 꿈’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섬길 것을 결단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해 달라’는 이해달 부사임이사의 기도로 비전나이트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병우 본부장(아버지학교 한국본부)과 황윤정 위원장(어머니학교 본부)은 “아버지

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경기에서 온 참가자들이 소개되자 큰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철 이사장은 영상을 통해 “올해도 교회와 사회를 세우고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운동에 계속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용 장로(아버지학교 이사,

2014 아버지학교

▶스쿨 안내

강사스쿨: 강사의 기본적 소양 및 아버지학교 철학을 전수하기 위한 스쿨.

헌신자스쿨: 오는 2월 8일(토), 경기도 화성 와우리 교회에서 봉사자가 갖춰야 할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스쿨.

영어강사스쿨: 오는 5월,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스쿨.

▶아버지학교 향후 20년 계획

: 젊은 아빠 위한 아버지학교 / 은퇴자 위한 아버지학교 / 단기선교프로그램의 아버지학교 / 방학동안의 청소년 감동 캠프 / 교회 임직자 위한 아버지학교 등을 개발 예정.

▶아버지학교 조직 개편

: 특수사역본부 신설, 기획본부→전략기획본부로, 국제본부→해외협력본부로 명칭 변경.

삼성미래전략실)는 “회복된 아버지의 영성으로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해줄 것”을 부탁했고, 유재건 장로(CGTV대표)는 “19년을 달려온 아버지학교가 나라와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훈 목사는 말씀을 통해 “먼저 회복된 아버지들이 나머지 아버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성묵 상임이사(아버지학교)와 한은경 본부장(어머니학교)은 2014년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향후 20년의 계획을 밝혔다.

/ 홍미남 간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새롭게 태어난 ‘빛과 소금’

크기와 가격은 Down, 내용은 Up

두란노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이 새롭게 태어났다.

올해부터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내려갔다.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2cm로 생명의 삶 QT책과 동일해졌고, 두께도 예전보다 얇아졌다. 가볍고 작게 줄어져 어디서나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가격은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저렴해졌다.

반면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사람’, ‘복음’, ‘미션’, ‘삶’ 크게 4개 주제로 구성했다. 각 주제마다 심층적인 기사를 다룬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

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익하고 재밌는 전문가의 글, 이웃들의 감동적인 간증이 가득하다. 특히 <아나운서 김재원의 ‘진심’>, <고무숭 목사가 만난 사람>, <응답하라, 빛소 클래식> 등 기획을 아낌없이 준비했다.

빛과 소금은 1985년 4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386번째 책이 발간되었다. 기독교인의 삶과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영성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대와 상황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며 생동감 넘치는 기독교 잡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변화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외형을 바꾸고,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꾸민 것이 변화의 배경이다.

한편 신규 정기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1월 31일 전까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구독자에게 자체 제작한 예코백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가격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빛과 소금이 올해부터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이 내려갔다. 1월호부터 가볍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나 내용은 풍성한 빛과 소금을 만날 수 있다.

▶빛과 소금의 역사

1985년 바른 생각과 삶을 추구하는 월간 잡지 ‘빛과소금’ 창간
1989년 ‘목회와신학’ 발행과 함께 신학적 내용 축소, 별책 부록 ‘생명의 삶’ 증정
1999년 소금맛 성도 및 믿고 교회를 표방해 ‘소금과빛’으로 제호 변경
2000년 미래를 여는 바른 생각 ‘빛과소금’으로 제호 변경, 격주간 시사 매거진으로 재창간

2007년 크리스천 라이프 매거진으로 재창간, 별책 부록 ‘내 영혼이 잘됨 같이’와 각 도별 지도 증정
2008년 믿음, 생활, 문화를 강화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 재창간
2011년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정해 편집하는 방식으로 재창간
2014년 크기와 가격이 내려간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태어난

▶「빛과 소금」과 함께

홈페이지 <http://www.duranno.com/sl>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lt-lightmag
구독신청 02-2078-3200

2014 CGNTV

‘선교 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

콘텐츠로 승부... 선교, 교육, 사회적 소명 프로그램 강화

CGNTV가 온누리교회의 2014년 표어 ‘은혜와 진리(Grace & Truth)’를 영상과 스토리 등으로 구현하기 위해 ‘선교 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세웠다. 이는 올해 CGNTV 전 직원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뿐 아니라 새롭게 선보일 프로그램들의 기획, 제작, 편성, 홍보 전 분야에 그대로 투영될 예정이다. 이번만 아니라 동남아 무슬림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등 글로벌 크리스천방송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안의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 계층과 청년대학생, 시니어세대에 보다 살갑게 다가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미리 본 CGNTV의 올 한해 모습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실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송은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말에 걸맞게 CGNTV의 선교 콘텐츠가 다각화될 것이다. 기존의 해외선교, 북한선교, 군선교 프로그램이 다소 정적이었던 4월1일 봄 개편에 선보일 50-70대 시니어세대(5070) 선교 및 청년대학생 전도 프로젝트는 소통과 체험이라는 동적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CGNTV는 올 한해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는 시니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인생 후반기를 시니어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좌담과 현장 체험프로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를 선보인다. ‘은빛날개’는 시니어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포함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와 생활 속 은혜의 순간을 ENG카메라로 리얼하게 담아내는 세미 다큐형식이다. 목회자, 교수, 통역사, 서예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50여명이 지원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6명의 시니어의 꾸밈없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는다.



청년대학생 전도프로젝트 ‘RUN’. 개인주의, 스펙지상주의, 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멘토링 전도시스템을 통해 학원복음화와 청년 전도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프로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 Young2080 등 청년대학생 사역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젊은 세대 전도 전문가들이 멘토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게 된다.

둘째, 복음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강화된다.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성경 기초 과정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와 심화 과정 ‘송병현 교수의 성경 속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기독교성인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대학생 리더십 양성과정을 선보인다. CGNTV만의 특화된 콘텐츠 ‘맞춤특강 나침반’도 확대 편성에 인생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방송언론사 최초로 이스라엘 성지 발굴에 참여하고 세계 고고학계에 대한 기획다큐도 준비할 예정이다.

셋째, 섬김의 생활화로 크리스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프로그램도 기획된다.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미자립교회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CGNTV 직원들이 직접 전국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 섬김



CGNTV는 올 한해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는 시니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방송의 질은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일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사진은 시니어들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아낸 세미 다큐체형프로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한 현지어 방송이 확대된다.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5개 방송스테이션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CGNTV 지사가 세워진다. 인도네시아 CGNTV는 현지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위한 콘텐츠, 무슬림 선교를 위한 콘텐츠 등을 방송하게 된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개국 8년만에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방송국이 될 수 있었다”면서 “올 한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준비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GNTV의 영적성장 콘텐츠

성경일독, 이야기 성경, 새벽기도회, 생명의 삶

CGNTV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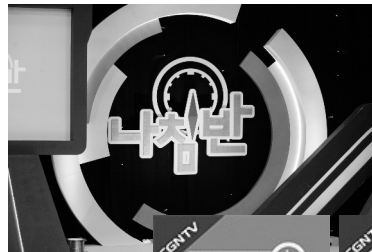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콘텐츠는 성경일독 서비스다.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통해 매일 10-15분 동안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 올해 안에 성경일독이 가능하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 성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성경을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어린이들이 성경과 친해지도록 눈높이를 낮췄다.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성경이 이제는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

매일 아침 방영되는 새벽기도회와 생명의 삶(QT), CGNTV 맞춤특강 ‘나침반’을 추천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맞춤



특강 ‘나침반’에 출연하는 각계각층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 도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9800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